

부모님 모시고 호텔로... 올 추석 'J턴족'이 뜬다

명절여행 D턴족→J턴족 변화 중
'호캉스 열풍' 시니어세대 확산

신라호텔, 울산·천안·제주 등
지방 호텔 예약비중 급증 추세

올 추석 연휴에는 'D턴족'이 아닌 'J턴족'이 대세로 떠올랐다.

명절 여행 트렌드를 대표해온 'D(디)턴족'이 최근 'J(제이)턴족'으로 변화하고 있다. 'D턴족'이란 귀성 후 집으로 돌아오는 경유지에서 남은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이동 경로가 알파벳 'D'와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다.

'J턴족'은 귀성 후 또 다른 지역에서 연휴를 즐긴다는 점에서 'D턴족'과 동일하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까지 함께 모시고 가까운 지방으로 떠난다는 점에



올해 추석에는 귀성 후 부모님과 함께 고향 근처 지방에서 연휴를 즐기는 휴가객인 'J턴족'이 늘었다. 신라호텔에 따르면 울산, 천안, 제주 등에 위치한 호텔의 부모님 동반 고객 예약 비율이 최소 10%, 최대 50%까지 증가했다. /신라호텔

서 차이가 있다. 이번 추석은 비교적 짧은데다가 국내여행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무더위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셨을 부모님을 모시고 근교로

여행을 떠나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 공간에서 놀이와 휴가, 식사가 동시에 가능한 '호캉스'는 여행을 계

획하는 자녀의 고민을 덜어줘 'J턴족'에게 주목받고 있다. 귀성 후 근교 호텔로 떠나는 여행은 접근성이 좋고, 안전한 시설로 시니어, 유아와 함께 여행하는 가족 고객에게 인기가.

특히, 몇 년 사이 여행 트렌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호캉스(호텔+바캉스)' 열풍이 60~70대 시니어들에게도 확산되면서 호텔들이 올 추석 'J턴족'의 특수를 맞았다.

신라호텔은 전국 신라호텔과 신라스테이의 추석 연휴 예약 추이를 확인해본 결과, 울산과 천안, 제주 등 지방에 위치한 호텔의 'J턴족'이 특히 눈에 띄게 성장했다고 밝혔다.

올 추석 호텔 예약 중 자녀가 본인 이름으로 부모님 객실까지 함께 예약한 비중을 분석해본 결과, 울산, 천안, 제주 등 지방에 위치한 호텔에서 'J턴족' 비중이 크게 올랐다. 천안과 제주 신라

스테이의 'J턴족'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10~15%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특히 울산 신라스테이는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신라호텔도 지난 8일까지 접수된 추석 연휴의 예약 중 'J턴족'의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호텔업계에서도 'J턴족'의 등장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호텔 측은 "시니어와 함께 '호캉스'를 즐기는 고객의 경우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텔 식음업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평소에는 알뜰 여행을 하던 자녀 세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값이 더 나가더라도 더 좋은 객실과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한다"면서 "구매력이 높은 'J턴족'을 유치하기 위해 호텔들도 다양한 가족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신라인터넷면세점 서포터즈 '신라루키' 1기 발대식. /호텔신라

신라인터넷면세점, 서포터즈 15명 선발

20~30대 구성 '신라루키' 발대

신라인터넷면세점이 고객 관점에서 더욱 심층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밀레니얼 세대로 구성된 서포터즈 운영을 시작한다. 모바일 쇼핑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 고객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은 2~30대로 구성된 서포터즈 '신라루키' 1기 15명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신라루키는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밀레니얼 세대 고객의 관점에서 신라인터넷면세점의 서비스를 면밀하게 살피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신라인터넷면세점의 서비스 소개 콘텐츠 제작 등 매달 주어진 과제를 수행한다. 매달 활동비, 신라인터

넷면세점 혜택이 지급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개인과 팀에게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활동을 종료하면 활동 수료증이 제공된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지난 8월 초 면세점 이용 경험이 풍부하고 모바일 앱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지원자로 이루어진 신라루키 1기를 모집했다.

서포터즈가 소속된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것이 주를 이루는 일반적인 서포터즈 활동과 달리 신라루키는 서비스 개선에 본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의 기존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획 중인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신라인터넷면세점 온라인CS팀과 3개월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

/김민서 기자

GS25-양천구청 '그린 프로젝트' 맞손

GS25와 양천구청이 민관협력 '그린 프로젝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9일 오후 양천구청, 에코허브, CU와 함께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에너지 및 온실가스의 절감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에너지 컨설팅 ▲장바구니 대여 2가지 사업으로 전개된다.

양천구청은 구내 90여 개 GS25 점포를 대상으로 환경·에너지 전문 단체 '에

코허브'를 통해 에너지 사용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실시한다.

에코허브의 전문 진단사들은 진단을 희망한 GS25 매장에 직접 방문해 에너지 사용현황과 소비성향을 분석하고 상담을 실시하면서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에 GS25는 에코허브와 양천구청에 진단결과를 제공하고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자료를 자체 분석함으로써 지역 점포들의 에너지 관리 효율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빈플레이디스 '그린 빈폴' 컬렉션 선보여

2030세대 타깃 온라인 전용상품
22일까지 추가 10% 할인행사 등

빈플레이디스는 지속가능성을 테마로 한 온라인 전용 상품 '그린 빈폴' 컬렉션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빈플레이디스는 2030대의 젊은 고객을 타깃으로 매 시즌 가성비로 무장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올 가을겨울 시즌에는 빈폴 3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자연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가운데 설원을 달리는 '크로스컨트리(Cross-Country)'에서 영감 받아 '그린 빈폴' 컬렉션에 디자인으로 승화시켰다.

빈플레이디스는 크로스컨트리를 콘



빈플레이디스의 온라인 전용 상품 '그린 빈폴' 컬렉션. /삼성물산 패션

셉트로 다양한 상상력을 반영한 상품을 출시했다.

스포츠 무드에 젊은 감성을 더한 체크더폴코트, 볼륨 소매 라인의 맨투맨, 가벼운 착용감의 후드집업 등 캐주얼한

상품으로 구성했다.

또 '크로스컨트리' 한글 레터링과 눈, 산, 스키 등 다채로운 그래픽을 맨투맨, 에코백 등에 디자인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재미있는 감성적 터치로 포인트를 줬다.

원은경 빈플레이디스 팀장은 "매 시즌 20~30대 젊은 고객들에게 신선하고 재미있는 감성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이번 시즌에는 빈폴의 지속가능성을 브랜드하는 차원에서 자연에서 느끼는 위대함과 영속성을 토대로 다양한 상상력을 반영한 '그린 빈폴' 컬렉션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빈플레이디스는 '그린 빈폴' 컬렉션 출시를 기념해 오는 22일까지 추가 10% 할인 행사와 이달 말까지 무료 교환 및 반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민서 기자

내달 4일 '미쉐린 가이드 고메 페어' 개최

HDC아이파크몰, 메뉴 한곳서 선봬

HDC아이파크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이 주최하는 '미쉐린 가이드 고메 페어 2019'를 오는 10월 4~6일까지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미쉐린 가이드 고메 페어는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 선정된 다이닝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이벤트다. 2017년 국내 첫 선을 보인 이후 올해 3년째를 맞이했다.

행사는 아이파크몰 8층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풋살 타운 '올인파크'에서 열린다.

올해는 행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미쉐린 가이드 타이페이 2019'에서 1스타에 선정된 유러피안 컨템퍼러리 레스토랑 '롱테일(Longtail)'의 램핑킨(Lam Ming Kin) 셰프를 특별 초청했다.

롱테일의 시그니처 메뉴와 라이브 쿠킹쇼, 스페셜 다이닝 프로그램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9에서 1스타를 받은 무오키, 스테이, 이중국 104, 진진, 테이블 포포 등도 참여한다. 신선한 재료로 좋은 요리를 선사하는 '플레이트(Plate)', 가성비 좋은 '빕 구르망' 레스토랑들도 참여한다.

소수 인원만 참석 가능한 인기 프로그램 '스페셜 다이닝'에서는 램핑킨 셰프와 이충후 셰프의 포렌즈 다이닝(네 개의 손이 만들어 내는 식사)이 진행된다.

이 밖에 식재료, 미식 아이템, 주방용품을 구경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마켓&다이닝존, 상시 이벤트가 열리는 ▲라이브존, 라이브 쿠킹쇼와 라이브 밴드 공연 등이 열리는 ▲퍼포먼스존 등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김민서 기자

애경산업

늘어붙은 오염 제거 분말타입 '뿌담세제'

애경산업은 에어프라이기, 냄비 등 다양한 주방기구에 늘어붙은 오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주방세제 '뿌리고 닦아쓰는 주방세제(이하 뿌담세제·사진)'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뿌담세제는 작은 알갱이의 분말 타입 주방세제로 냄비, 그릇 등 설거지거리에 한 스푼 정도 뿌리고 미온수에 담가두면 늘어붙은 음식물과 기름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뿌담세제는 복합분해 효소가 음식물을 분해하고 스파클링 클리닝 시스템으로 오염물질이 코팅면과 분리되는 원리다.



/김민서 기자